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7

한라산 둘레길

천아수원지를 출발하여 한라산자락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오름 계곡 임도와 표고버섯재배지 운송로, 일제강점기 병참로 등을 활용하여 개설한 에코힐링숲과 서귀포 항일운동의 성지 무오법정사와 시오름, 동백숲, 수악교, 이승악, 사려니, 물чат오름, 비자림로 등을 연결하는 80km가 넘는 몽상과도 같은 환상숲길을 탐방한다. 한라산이 직접 꺼안은 오름을 탐방하고, 역사·문화 흔적을 답사하고, 생태·산림·문화 체험·학습장을 탐방하고 들머리를 생각하면 100km는 족히 되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길이나 제주와 함께하는 한라산이기에 보람차다. 오름은 물론 허리를 감싸고 있는 계곡·숲과 이들과 함께 하는 용암 하나, 동식물 하나하나에도 애지중지 품어주는 한라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둘레길 탐방은 올레길처럼 시종점이 이어지므로 승용차 탐방은 되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천아숲길

이 염천에 한라산 숲 그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천아수원지입구에서 오름 계곡과 숲속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서귀포자연휴양림까지 가는 한라산 둘레길 산책 나섰다. 천아숲길과 돌오름 둘레길만 16.5k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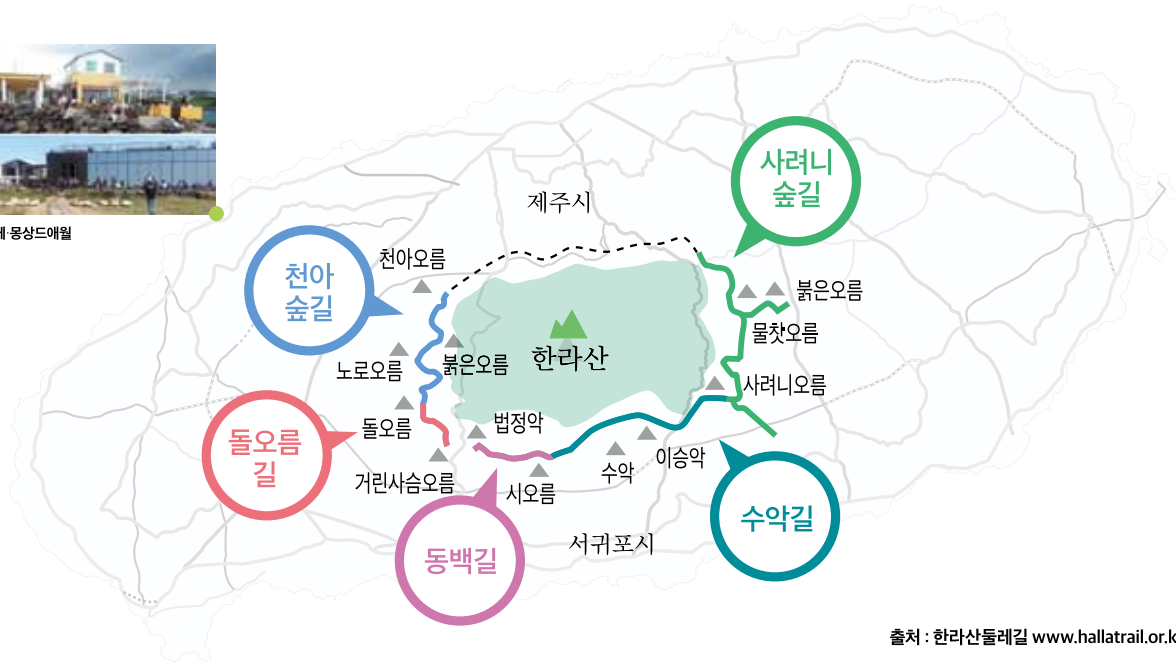
한라산 둘레길(천아숲길입구)에서 시작하는 들머리는 잡목과 소나무가 2m 너비도 채 안 되는 하늘을 두고 영역싸움이 한창이



한라산에 올라 느꼈던 벅찬 제주의 모습과 행복감의 감흥은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고
다시 한라산과 함께하는 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낮은 데로 임한다.
한라산자락을 휘감아 돌면서 산림치유, 산림건강을 다지는 생태공간 둘레길을 탐방한다.



봄날 카페 몽상대에월

출처 : 한라산둘레길 www.hallatrail.or.kr

다. 광령천을 건너면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섰다. 목책과 용암 계단으로 자연재해를 피해 어렵게 낸 길을 지나면 한결같이 잡목·삼나무는 하늘을 차지하고 조릿대숲은 땅을 차지하면서 임도를 이어간다. 송이와 시멘트가 좋은 길을 내어 주는가 싶으면 화산재와 용암이 진창과 내창길을 이어주고 오름들 사이사이를 굽이치며 이어지는 거친 임도는 천아숲길의 주 탐방길이다. 노로오름, 붉은오름, 한대오름, 삼형제오름 사이사잇길 어디를 어딘지를 모르지만 아자매트, 송아·뱅디길을 부지런히 걷고 걷는다. 진흙웅덩이 숨은물뱅디는 지루함을 들어주고 고요한 자연의 소리에 정적을 깨는 영클어진 잡음은 내가 내고 있구나. 달그락거리는 빈 물병 소리와 잘잘 거리는 자갈 소리, 부스럭거리는 폭신한 낙엽 소리, 표고버섯 포자 틔우는 소리와 탐방객의 외로운 거친 숨소리만이 자연에 있다. 꽃자왈과 삼나무숲과 자연림과 함께 하

는 정말 좋은 탐방길이다. 이렇게 보림농장까지 왔다. 천아숲길 시작, 돌오름길 끝 점이다.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1100도로(1139번 도로) 18임반입구(1.6km)로 나와 영실입구(550m)로 가서 버스(240번)를 타야 한다.

**뚜벅이** : 1100도로 한라산둘레길(천아수원지입구, 240번)

→ 탐방소(시멘트길) 2.2km

승용차 : 광령천탐방소 간이주차장과 1100도로 18임반입구

노견주차

돌오름

천아숲길 시작·돌오름길 끝인 돌오름(해발 1,270m, 서향말굽형



천아숲길·뱅디길



천아숲길-임도·버섯운송로



돌오름 정상 한라산 전망

분화구) 삼거리에서 돌오름 정상으로 간다. 삼나무숲으로 시작한 완만한 숲길은 정상으로 가면서 허리는 완전히 조릿대숲길이며 산등성이는 잡목이 길을 더욱 험하게 했다. 유난히도 광광나무가 많으니 정상에선 벤치 역할, 전망대 포토존까지 자청했기에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안쓰럽다. 한라산전망은 기지국 덕일지라도 목직한 머리에 편두통까지 앓고 있는 모습에 통증을 덜어주지도 못하는 오르미의 마음이 편치 않구나.

돌오름길

제주도의 단골 여행코스이자 최고 인기코스 한라산 둘레길!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제강점기 병창로와 임도 등을 활용해 근처의 생태를 잇는 장장 80km 길이의 한라산 환상숲길인 천아숲길과 돌오름 탐방에 이은 돌오름길 탐방이다. 경로 중간에 색달천이 흐르면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기르며 맑은 환경을 자랑하는 둘레길이나 서귀포쓰레기매립장이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천아숲길에서 이어지는 야자매트길은 색달천에서 용암길로 바뀐다. 잘 가는지 지켜보는 놈이 있다. 노루다. 멍칫거리며 또 노려본다. 같이 갈까나 하고 기념사진도 찍는다. 그래도 물끄러미 본다. 역시 쓸개 빠진 노루다. 용의 등 비늘과 같다 하여 붙인 열하분출(틈새분출)용바위, 판상절리의 하천계곡이 돌오름길로 마음에 새긴다. 송이길, 야자매트길, 낙엽길을 걸으며 한라산 둘레길에 베푸는 자연의 맛을 음미하면서 계곡하천 바위, 돌길을 걸으

면서 오른발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좌우로 앞뒤로 나를 싣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평탄한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나 자연에 따라야 하는 끈의 마음은 아프다. 졸참나무, 삼나무, 단풍나무, 시누대나무숲길을 지나 나의 길은 다 소화되었다. 탐방안내소에는 아무도 없다. 여기는 뭔가 다른 추억을 새끼줄에 엮어 놔다.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증표로 남기는 것이다. 나의 증표는 사진 한 장으로 족하다.



돌오름길 - 야자매트길



돌오름길 - 판상절리 하천



뚜벅이 : 역방향 : 1100도로 영실입구(240번) → 18임반입구

→ 탐방소 2.2km

순방향 : 1100도로 서귀포자연휴양림(240번)

→ 탐방소 270m

승용차 : 서귀포자연휴양림(주차장, 화장실) 또는 맞은편 둘레길 입구 간이주차장

동백길

하늘도 한여름의 열기에 힘겨워하는데도 가없는 둘레길 탐방객은 이름이 좋아 숲이 좋아 역사탐방이 좋아 일찌감치 동백길 탐

방에 나섰다. 무오법정사길 아스팔트가 열기를 뿜어내기 전에 이슬이 깨기도 전에 잠방이를 적시며 돌레길 안내소에 들렀고 친절한 안내에 감사한다. 항일운동의 성지 법정사터는 답사해야 한다. 동백길 시작을 알리는 나무아치의 운치와 좋은 길 아자매트 길은 정성이 들어있다.



허약한 동백나무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선보이며 동백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늘을 가린 활낙엽수와 동백나무는 몸을 가볍게 해주고 장마는 새로운 길을 내려 안간힘을 썼다. 일제강점기병참도로(鉢卷き道路)에 가슴앓이고, 제주의 아픈인 화전마을 솟가마 터, 4.3 유적지(시오름주둔소)에서 잠시 번뇌하다 시오름(숯오름)에 올라 시름을 털어 낸다. 안내 표지석 번호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며 울울창창 침엽수림을 지나면서 깊은 심호흡도

하면서 너무나 작은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조금씩 그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쓰러진 나무줄기 사이를 이어가는 개미들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나도 무리 중의 한 마리로 느껴진다. 주민들의 산책길인 추억의 숲길, 치유의 숲길에 이끌리면 돌레길 탐방을 잊고 한순간 마음은 편하나 동백길은 힘들고 지루하다. 거문오름과 미악산(숯오름)을 탐방하면 더욱 그렇다. 다리 아픔에 마음이 용서를 구하고 돌레길로 되돌아와 동흥천과 영천을 가로질러 가면서 돈내코 계곡에 철철 넘쳤을 계곡물을 느낀다. 한라산 빌레이기에 산사태는 없는 것일 것이다. 쓰러진 나무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한라산의 피부는 아주 단단하고 질기다. 돌레꾼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동백길 끝이라는 나무팻말과 마주쳤다. 위치표지는 26번이다. 삼거리다. 수악길과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가 같이 하고 있다. 갑자기 썰렁하니 혼자가 되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책대로 돈내코 탐방로로 내려왔는데... 안내지기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수악으로 갔을 겁니다. 충혼묘지광장에 가면 버스가 있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버스운행체계다. 제주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동백길은 고달픈 제주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때쯤 버스가 왔다.



뚜벅이 : 1100도로 법정사입구(240번) → 돌레길안내소 2.2km

돈내코로 서귀포충혼묘지광장(610-1번) → 탐방안내소 1km

수악길

망자 지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돈내코 탐방안내소는 서귀포시 공설공원묘지 위쪽에서 한라산의 명을 받들어 영령들을 받들고 서귀포를 굽어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하루에 6회 운행하는 서귀포 지선버스(610-1번)를 잘 이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천악이나 석주명나비길 정도를 탐방해야 한다.



동백길 - 병참도로(하치마키도로)



동백길 - 모드락지구 숲길



귀 기울이면 은은히 들리는 남국선원의 아침예불소리와 함께 탐방나선다. 지루한 시멘트 포장 임도를 한참을 지나 다리 아픔을 느낄 때 엔 하늘숲길과 비바람을 견딘 용암길이 위치를 옮길 때마다 계절과 시간을 확인해준다. 물길을 잡아주는 울통불통 용암길, 자연을 머금은 빌레길, 폭신한 낙엽길, 잔잔한 자갈길, 포근한 초원길, 짧은 아자매트길이 완만한 오르내림으로 수악교안내소까지 이어진다. 수악길안내원의 탐방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오늘은 수악(물오름)까지만 탐방하고 나머지 구간은 수악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종착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사려니오름을 탐방하고 이승이오름을 거쳐 수악까지 오면 좋단다. 순방향 둘레길에 들어서기 전에 붉은송이길을 따라 잠시 수악정상에 둘러 서귀포 전망으로 눈을 맑게 한 다음 예측할 수 없는 등산길만을 따라가야만 한다. 신례천(건천) 용암길을 건너고, 활낙엽숲속을 경계짓는 구분담 등산길을 지나고, 계곡 깊숙이 감춰진 해그

문이소에서 맘을 흠치고, 가파른 목책계단 이승이오름을 등반하고, 삼나무수림 사이로 난 아자매트길을 고즈넉이 산책하다 보면 갑자기 안내판 수악길끝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수악길을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한남연구림탐방로(사전예약)를 탐방하고 사려니숲길 입구에 수평으로 걸쳐진 3개의 정낭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발길을 돌려 사려니오름을 탐방하고 임도를 따라나서면 수악길끝 쫓말을 따라 역방향(수악길B코스)으로 탐방한다. 사려니 남서쪽 자락에서 이승이오름순환길(생태길과 정상길)과 이어지는 치유의 숲길을 산책하면서 역사의 현장(갱도진지, 숯가마)을 답사하고 스무 개의 목책계단군을 올라 이승이오름에 오르고, 오름을 따라 남원바닷가를 이어주는 감귤과원의 은빛하우스와 바다전망에 한숨 돌리고 목을 축인다. 해그문이소를 지나 신례천을 건넌다. '집에서 TV나 볼걸'이라는 리본이 정곡을 찌른다. 오름과 계곡을 탐방하는 재미보다는 고생이 더 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뚜벅이 : [시점] 돈내코로 서귀포충혼묘지광장(610-1번)

→ 탐방안내소 1km

[중점] 516도로 한라산둘레길(281번)

[종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수망교차로 사농동산(231,232번) 6km

수악길 - 산정화구호



사려니숲길

제주에 생활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찾았던 곳이 사려니숲길이다. 날씨가 껄거나, 시간이 어중되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나, 기분이 우울할 때도 찾아 나선 곳이 사려니숲길이며, 찾을 때마다 한결같은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려니숲길이 한라산 동쪽 둘레를 지키면서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누구냐를 더 많은 탐방객을 포용하기 위해 허리 부분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쉬기는 하지만 남은 구간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아쉬워할 것도 없다. 진출·입여건을 감안하여 서성로에서 탐방하는 것이 좋다. 사려니숲길은 탐방로도 탐방로지만 들머리도 예사길이다. 지나가는 차량에 동승이라도 하는 행운이면 짝이다. 수방교차로를 들머리로 하여 ❶의귀에코힐링마로를 산책한 후 목장길과 따라 진입하거나 ❷한남교차로를 거쳐 난대야열대 산림연구소의 한남연구림탐방로를 거쳐 진입하거나 ❸머체왓숲길을 가로지르는 목장길을 따라 사려니숲길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는 사려니숲길 통제구간-월든삼거리-성판악 탐방로를 탐방한다. 사려니숲길 개방구간(남조로 붉은오름↔비자림로 사려니숲길)은 사려니숲길에서 낮을 익혔다.

한남연구림탐방로는 잘 닦여진 임도송이길·시멘트포장관리길이다. 양하갈림길은 세심정을 통해 사려니오름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초갈림길, 새덕이갈림길까지는 넉거리오름, 머체오름, 거린오름 왼쪽 자락과 서중천계곡 왼쪽을 끼고 걷는 길로 삼나무 숲길이 줄지어 반겨준다. 일부 시멘트 포장구간을 제외하고는 잔잔한 송이가 발밑에서 재잘거리며 흥을 돋운다. 계속 이어지는

삼나무숲길은 삼나무전시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환형으로 잘 단장된 목책테크를 따라가면서 삼나무 피톤치드와 나의 숨소리가 동조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있는 편안한 나를 느낀다. 목장길과 통제구간은 시멘트와 용암길로 이용하는 빈도만큼 다듬어진 거친 길이며, 한라산을 만나러 가는 성판악숲길은 등산길로 용암길과 내창 길이 함께하므로 힘들다. 어느 길이든 삼나무와 곳자왈 활낙엽수의 울창한 숲은 걷는 자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제구간에 있는 마은이오름과 가친오름, 개방구간에 있는 물чат오름, 성판악구간과 함께하는 궤펜이와 넉거리(교래)오름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일까? 아니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까? 개방구간 사려니숲길에서 누렸던 달콤하고 아름다운 미로숲길, 오솔길, 삼나무숲길, 새왓내길을 상기하자. 사려니숲길은 결코 두 얼굴은 아니다. 한라산을 지키는 둘레길이요, 힐링숲길이다.

사려니오름

한남연구림 탐방자로서 사려니오름을 탐방한다. 목재데크와 계단으로 이어진 쉼터에서 느슨해진 채비를 다지고 잡나무 가득한 오름사면을 오르면 용암을 꺼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잡목 뿌리들이 사려니오름의 민낯을 가려준다. 살포시 그대의 맨 등을 밟고 지나면 용암과 목근과 재가 제 역할을 다하여 사려니오름 정상까지 있었다. 정상안내판엔 고이, 생길이오름, 지귀도, 섬섬, 문섬 등이 이름을 새겼다. 내려가는 목책계단은 삼나무 칠형제와 함께 숨가쁜 777나무계단길과 오고생이[본래그대로,





사려니숲길 - 통제구간



사려니오름 삼나무철형제

593-420-330-88] 오솔길이다. 상큼한 숲길 오고생이오솔길은 593(오구삼)번째 계단에서 시작하여 오고생이라고 하고 사이좋게 420(사이영) 계단평상침터에서 쉬면서 삼나무숲을 삼삼하게 지나 330(삼삼영)계단을 만나고 팔팔하게 88(팔팔)계단으로 내려가는 뜻 있고 재미있는 길이다.

사려니오름을 포함한 숲길 전체탐방은 매년 5월말~6월초 탐방가능 (보름정도)

-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청이 제안하는 휴식공간 쉼터이야기/ 제주시험림사려니오름)에서 예약 후 탐방. 입·출구간 버스운행.

뚜벅이 : 수망교차로 사농동산(231,232번)을 들머리로 하여

- 의귀에코힐링마로(시멘트포장+송이길) - 목장길 진입 7.7km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시멘트포장) - 한남연구림탐방로 진입 13km
- 머체왓숲길(시멘트포장) - 목장길 진입 11.6km

고단한 당신을 위해 연계관광지는 쉽니다.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웃으며 살다보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제주음식 : 한라산조랑말



목요일은 말 작업합니다(이날은 시식 육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코스 요리로 한라산 둘레길의 고된 하루를 제주말고기 특식으로 원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내장탕? 비위 좋아요?

명소 들리기

봄날카페·몽상드애월 : 애월해안산책로·울레15B길·곽지과물해변산책로·장한철산책로·애월10경순례길에서 명성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곳 봄날카페와 몽상드애월(빅뱅지디카페)은 제주의 멋과 맛, 낭만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봄날은 맨도롱또 하다[기분 좋게 따뜻하다].



[] 제주방언, () 보충설명

정보검색 : 한라산둘레길 www.hallatrail.or.kr

다시 오름 탐방 갑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본부가 있는 곳. 거문오름군이다. 9마리의 용이 꿈틀대면서 제주 북동부 바다로 빠져나간 용암 흔적을 찾아간다. 주변에 있으면서 거문오름의 유명세에 가려 한 번만이라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바매기, 우진제비오름과 부소, 부대, 골제, 민오름을 찾아가 위로하는 벼룩의 삶을 실천한다.